

뛰어 놀고 싶어요!

신곡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윤후

집안에서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요!

집 안에서 티비만

보고 놀아요!

집안에서 아빠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놀아요!

하지만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아요!

나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요!

친구들과

매일 매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푸른 하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